



# 겨울철새 '복상', AI 대응체계 '유지'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 서식현황 조사



금강호 겨울철새 (사진제공=서울신문)

국내에 서식하는 겨울철새가 한달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철새들의 복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 3월 17~19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의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90종, 65만 7,636마리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조사(130만 2,293마리)와 비교해 49.5%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3월보다도 약 8,000마리 적었다.

겨울철새 개체수가 급감한 것은 복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겨울철새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10~11월 한국에서 겨울을 난 뒤 다음해 2~3월 다시 번식지로 돌아간다. 겨울철새는 남한강(여주~충주)과 장항해안, 남양만, 한강 하류, 만경강 하류 등 중부 및 서해안에 집중 분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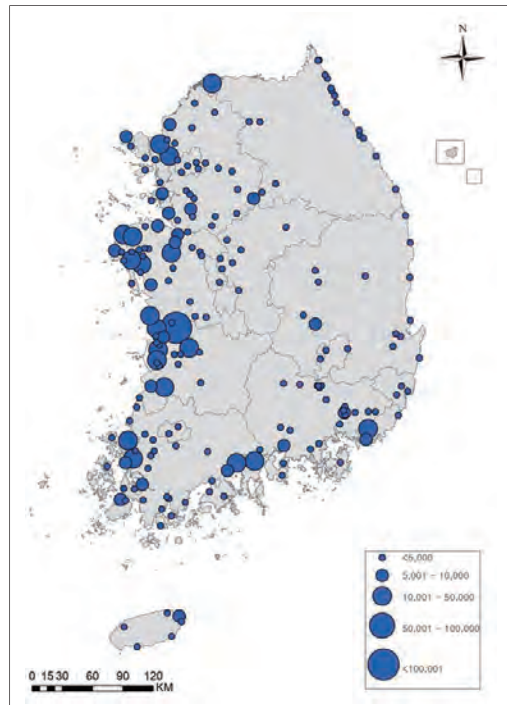
## 3월 철새 90종 65만여마리, 한달만에 절반 감소 철새도래지 정기 예찰-시료 채취 검사 등 유지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는 63%(66만마리)가 떠났다. 오리류에서는 군집성이 강한 가창오리가 약 40만마리, 청둥오리 약 5만마리, 흰뺨검둥오리 약 1만마리가 감소했다. 기러기류는 쇠기러기 약 8만 9,000마리, 큰기러기 5만8,000여마리, 고니류에서는 큰고니가 약 7,000마리로 개체수가 줄었다.

환경부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AI 대응 태세는 유지키로 했다. 주요 철새도래지(87곳)에서는 주 1회 이상 예찰 활동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각 시·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AI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진단하는 등 확산에 대비키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대책 및 철새 보호를 위해 10월부터 3월까지 매일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병원성 AI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지역을 11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했다.

3월 전국 오리과조류 분포지도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이 줄고 북상으로 겨울철새가 감소했다”면서도 “AI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출처\_ 서울신문 www.seoul.co.kr